

영규(靈圭)

미상~1592(선조 25). 조선선조 때 승려, 승병장
본관 밀양(密陽), 호 기허(騎虛)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선조 때 승려이자 승병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승장이 되어 의승 수백 명을 규합하고 관군과 더불어 청주성 왜적을 쳐서 청주성을 탈환하는 데 공헌하였다. 청주 중앙공원에는 의병장 영규대사 전장기적비가 세워져 있으며, 2012년에도 청주성탈환 추모제를 시행하고 영규대사를 공헌을 기리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충청남도 공주 청련암(靑蓮庵)에 있으면서 선장(禪杖)을 가지고 무예를 익히기를 즐겼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3일 동안을 통곡하고 스스로 승장이 되었다. 의승(義僧) 수백 명을 규합하여 관군과 더불어 청주성의 왜적을 쳤다. 관군은 패하여 달아났으나 그가 이끄는 승병이 분전하여 마침내 8월 초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이어 의병장 조헌(趙憲)이 전라도로 향하는 고바야기와(小早川隆)의 일본군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는 관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하여 이를 늦추자고 하였지만 조헌이 듣지 않자 그는 조헌과 함께 금산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조헌이 이끄는 의사와 영규가 거느린 승군은 1592년 8월

영규대사 영정

18일 금산전투에서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워 일본군의 호남침공을 저지하였다.

서울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는 청주성 승전의 소식을 듣고, 영규에게 당상의 벼슬과 옷을 하사하였으나 영규는 임금이 내린 상사(賞賜)가 도착하기 전에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승병이 일어난 것은 그가 최초로서 전국 곳곳에서 승병이 쫓겨나는 도화선이 되었다. 금사의 종용사(從容祠)에 제향 되었으며, 뒤에 법도(法徒) 대인(大仁) 등이 금산 남쪽 진락산(進樂山) 기슭에 그의 영정을 안치한 진영각(眞影閣)과 비를 세웠다.



영규대사 전장기적비

신립(申瑴)

1546~1592. 조선중기의 무장.
본관 평산(平山), 시호 충장(忠壯).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 중기의 무장으로 1583년(선조 16) 온성부사로 있을 때 이탕개(尼湯介)를 격퇴하였고, 임진왜란 당시 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병의 활용을 극구 주장하여 충주성 서북 4km 지점에 있는 탄금대(彈琴臺)에 나아가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전사하였다. 충주시 탄금대에 신립장군순국지비와 충장공신입장군순절비가 있으며, 2012년 우륵문화제 기간에 명현 5위를 추모하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어릴 때부터 글읽기보다 무예 닦기를 좋아하여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도총관·도사(都事)·경력(經歷) 등의 벼슬을 거쳐, 외직인 진주판관으로 나갔다. 이 때 문장가로 이름난 진주목사 양응정(梁應鼎)으로부터 거친 성격을 고칠 것을 종용받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목사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기도 하였다.

1583년(선조 16) 온성부사로 있을 때 이탕개(尼湯介)가 거느린 야인(野人)들이 침입하여 훈융진(訓戎鎭)을 공격, 첨사 신상절(申尙節)이 위급하게 되자 유원첨사(柔遠僉使) 이박(李璞) 등과 합세하여 적병 50여 명을 목 베고 이어 적군을 추격, 두만강을 건너가서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였다.

또 경원부(慶源府)와 안원보(安原堡)에 침입한 야인들 및 같은 해 5월 중성에 쳐들어온 이탕개의 1만여 군대를 물리쳤다. 평상시에 철기(鐵騎) 500여명을 정병으로 훈련시켜 그 민첩함이 귀신같아 야인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신립장군 영정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그를 삼도순변사로 임명하고 보검을 하사하였다. 이에 그는 특별히 청하여 유성룡(柳成龍)의 막하에 들어가 부장 김여물(金汝幢) 및 80명의 군관과 시정백도(市井白徒 : 일반 시민으로 군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수백 명을 모병하여 충주로 떠났다.

그는 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병의 활용을 극구 주장하며 군대를 돌려 충주성 서북 4km 지점에 있는 탄금대(彈琴臺)에 나아가 배수진을 치고 임진왜란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니시(小西行長)를 선두로 한 왜군이 대대적으로 공격해오자 중과부적으로 포위되어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그 결과 아군의 힘을 믿고 미처 피난을 하지 않았던 충주의 사민(士民)과 관속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아군이 섬멸되자 김여물·박안민(朴安民) 등과 함께 남한강물에 투신, 순절하였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탄금대

조헌(趙憲)

1544(중종 39)~1892(선조 25). 조선 중기 문신, 의병장
본관 배천(白川). 호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의병을 모아, 영규(靈圭)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옥천 표충사(表忠祠), 배천 문회서원(文會書院), 김포 우저서원(牛渚書院), 금산 성곡서원(星谷書院), 보은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 되었으며, 1971년 금산의 순절지 칠백의총이 성역화되었다. 옥천에서는 2012년 중봉충열제 거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조헌선생 영정

1555년(명종 10) 12세 때 김황(金滉)에게 시서(詩書)를 배웠는데, 집이 몹시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헤어졌어도 눈바람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진 글방 가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도울 때나 땀감을 베어 부모의 방에 붙을 땀 때에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1565년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156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68년(선조 1)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과주목·홍주목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사풍(士風)을 바로잡았다.

1572년부터 교서관의 정자·저작·박사를 지내면서, 궁중의 불사봉향(佛寺封香)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려 국왕을 진노하게 하였다.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동환봉사 東還封事>를 지어 올렸다.

1582년 계모를 편히 모시기 위하여 보은현감을 자청하여 나갔는데, 그 치적이 충청좌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었다. 그러나 대간의 모함에 따른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다시 공주목제독(公州牧提督)을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옥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였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의병 1,600여 명을 모아, 8월 1일 영규(靈圭)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 당하고 불과 700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 영규의 승군과 합진해서,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의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인 끝에 중과부적으로 모두 전사하였다. 후세에 이를 숭모하여 금산전투라 일컬었다.



후율정사 내에 있는 후율당

김시민(金時敏)

1554년(명종 9)~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 무신
본관 안동(安東). 자 면오(勉吾). 시호 충무(忠武)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사한 진주목사의 직을 대리하여 지원군과 함께 적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둬 요충지인 진주성을 지켜냈다. 진주대첩을 거둔 명장으로 괴산읍 농천리에 사당과 묘가 있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김시민장군 영정

1578년(선조 11) 무과에 급제해 군기시(軍器寺)에 입사하였다. 1583년 이탕개(尼湯介)의 난 때 도순찰사 정언신(鄭彦信)의 막하 장수로 출정해 공을 세운 뒤 훈련원판관(訓練院判官)이 되었으나 군사에 관한 건의가 채택되지 않자 사직하였다.

1591년 진주판관이 되어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목사 이경(李璣)과 함께 지리산으로 피했다가 목사가 병으로 죽자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의 명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였다. 먼저 피난했던 성민을 귀향하게 하고, 성을 수축하며 무기와 기재를 정비하는 한편, 군사(行伍)를 편성, 군사 체제를 갖추었다.

이어 의병장 김면(金沔)의 원병 요청으로 정병 천여 명을 이끌고 호응·거창의 사랑암(沙郎巖)에서 금산으로부터 서남진하는 왜적을 맞아 대승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전공으로 그 해 8월 진주목사로 승진되었다. 취임 후 진해의 적을 물리치고 적장 평소태(平小太)를 사로잡아 행재소(行在所)로 보낸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진주는 전라도로 통하는 경상우도의 대읍(大邑)이며, 경상우도의 주력군이 있는 곳으로 왜군의 공격이 집요하였다. 진주대첩 당시 성안에 명령을 내려 노약자와 부녀자까지 남장을 시켜 군사(行伍)의 위용을 보이게 하는 한편, 화살을 함부로 쏘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적과의 싸움에 대처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적의 2만여 대군이 성을 포위하자 불과 3,800여 명의 병력으로 6일간의 공방전을 벌여 적을 물리쳤으나 이 싸움에서 이마에 탄환을 맞았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국사를 근심하고 때때로 북향해 절하고 눈물을 짓다가 상처가 깊어져 며칠 뒤 사망하였으나, 성에서는 적이 알까봐 비밀로 했다가 안정이 된 뒤 상을 치렀는데, 상여가 함양에 이르자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발탁되었다는 조정의 명을 받았다.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과 영의정에 각각 봉해졌고, 이와 함께 상락부원군(上洛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진주의 충민사(忠愍祠)·산성정충당(山城旌忠堂)에 제향되었다.



괴강가에 자리한 충민사

이영남(李英男)

미상~1598(선조 31). 조선 중기의 무신. 진천 출신
본관 양성(陽城), 자 사수(士秀).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충북 진천 출신인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장으로 활약하였다. 울포만호·가리포첨사를 역임하면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순국하였고, 임진왜란 전공으로 선무원종1등공신에 책훈되었다. 이영남 장군의 묘는 도기념물 14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천에서는 매년 5월 3일 제향하고, 2006년 이영남장군 재조명 학술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이영남장군 영정

할아버지는 음죽현감(陰竹縣監)을 지낸 이계보(李季寶)이며, 아버지는 창신교위(彰信校尉)를 역임한 이사종(李嗣宗)이다.

1563년(명종 18) 지금의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에서 태어났고, 22세인 1584년(선조 17) 별시(別試) 무과에서 병과(丙科) 제163위(位)로 급제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우수영 휘하의 울포권관(栗浦權管)으로 재직 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전라좌수군에 연합 지원 함대의 구성을 요청하는 청병사절(請兵使節)로 선발되어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일을 성사시켰다. 당시 그가 청병사절로 선발된 이유는 일찍이 이순신 장군과 구연(舊緣)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라좌수영과 경상우수영의 연합 함대가 구성된 이후에는 소비포권관(所非浦權管)으로 자리를 옮겨 1592년 5월부터 1595년 4월까지 3년간 근무하였다. 뒤이어 북방으로 전직되어 1595년(선조 28)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강계부판관(江界府判官)을 역임하였다. 이후 다시 남방의 수군(水軍)으로 돌아와 울

포만호(栗浦萬戶)·가리포첨사(加里浦僉使)를 역임하면서 해전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가리포첨사로 있던 1598년(선조 31) 11월 18일 일본군과의 최후의 해전이었던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좌하여 역전(力戰)하다가 탄환에 맞아 향년 36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으며, 1621년(광해군 13) 병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이영남 장군 묘소

장충범(張忠範)

미상~1597(선조 30).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 단양(丹陽), 자는 효칙(孝則).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충북 음성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채유종(蔡有終), 조웅(趙熊)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승승장구 하였으며 1597년 음성 생극면 생리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그 공을 인정받은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장충범(張忠範)은 장언구의 아들이며, 부인은 청풍유씨(淸風劉氏)이다. 음보(蔭補)로 벼슬에 나아가 군사감주부(軍資監主簿)가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채유종(蔡有終), 조웅(趙熊) 등 여러 사람과 의병을 일으켜 5백여 명을 모아 6년간 싸우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지만 충주(忠州)에서 적과 싸우다 부상당하고 향리(鄉里)인 삼생리에 와서 치료하였다. 그 후 1597년(선조 30) 음성의 생골 전투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순절(殉節)하였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여 의관으로 허묘(虛墓)를 만들었다.



장충범 묘소 전경



장충범 충신문

1605년(선조 38)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녹권이 하사되었고, 1857년(철종 8)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史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五衛都摠府副摠管)에 가증, 충신정려(忠臣旌閭)가 내려졌다. 이후 1971년 생극면 생리에 임난공신장충범장군기념비(壬亂功臣張忠範將軍記念碑)가 건립되었다.